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11월 23일(금) ..(음력 10월 16일).. Пятница 23 ноября 2018 г. № 45(11681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11월 마지막 일요일을 러시아에서 어머니의 날로 기념한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할머니들의 모습.

(이에식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한국 보건복지부장관,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표창

한국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에게 표창장과 함께 포상했다.

표창장에는 "귀하는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으로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란 내용이 담겨 있다.

11월 25일 러시아에서 어머니의 날 기념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러시아에서 어머니의 날을 기념한다. 올해는 11월 25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할린에서 여러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명절을 앞두고 22일(목) 16시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감사하며>기념 대공연이 개최되고, 25일에는 특별하게 자녀 양육에 성공한, 장한 여성을 위한 시 행사도 조성된다. 주 향토박물관은 25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6시까지 만화 상영, 가족끼리 차 마시기, 견학, 놀이, 활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25일 13시 <나의 엄마> 명절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사할린주한인여성회와 주한인협회는 1세 할머니들을 위주로 한 기념행사를 24일 16시에 열 계획이다.

사할린주, 최근 5년간 송어 어획량 중 올해가 가장 높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에서 개최된 극동수역 수산과학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 연방 수산청 일리아 수산청장은 극동연방구에서 67여만 톤의 기록적 연송어 어획량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어획량을 보인 곳은 캄차트카변경이었고, 2위는 사할린주가 차지했다. 연어 어획량은 사할린주의 50개 이상의 수산업체들의 역할로 작년 대비 1.5배나 증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할린주 정부 아나톨리 마코예도브 부수상은 2018년 사할린과 쿠릴 수산업체들의 송어 어획량은 8만500여 톤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어획량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사할린 대학생 예브게니 코파노브, <우니베르비제니에>음악경연대회에서 3등

사할린 예술전문학교 학생 예브게니 코파노브가 <우니베르비제니에>전국대학생 음악경연대회에서 3등을 했다고 전해졌다.

올 경쟁프로그램에는 140명이 참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 솔리스트 30명과 6개의 예술단체가 선정되어 두 차례 예선에 참가했다. 최종적으로 12명이 뽑혀 온라인 투표에 올랐다. 사할린 대학생 예브게니 코파노브는 직접 작곡·작사 한 노래 <나의 우주>로 3위를 수상했다.

예브게니는 "전국 140개 대학에서 온 학생들 사이에 3위를 차지한 결과에 만족스럽다."는 소회를 전하며 앞으로 <대학생의 봄>축제 음악경연에 출전 계획을 밝혔다.

내년 1세 동포 한국 초청진료 사업 확대 한국대표단 사할린 방문

지난 11월 19-22일 3박 4일 일정으로 사할린 잔류 1세대 의료서비스 문제로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 직원들로 구성된 대표단(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신숙호 주무관, 기획조정담당관 김원기 주무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수에 팀장, 구민경 주임, 대한적십자사 이해영 팀장 - 총 5명)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사할린 1세 동포 한국 초청진료 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사할린 1세 동포 72명이 3차례 한국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밀검사와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이번에 사할린을 다녀간 한국대표단은 3차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그리고 홀스크구역 프라우다 마을을 방문하고 지난 20일(화)에는 진료와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과 한인문화센터에서 만남을 가졌다. 의료보건재단과 보건복지부 대표들은 한국에서 진료 받은 후 어르신들의 현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어르신들의 제안, 또는 바람도 들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잘 받았다고 표명하고 다시 한국에서 진료 받고 싶다는 뜻을 표했다.

(2면에 계속)

사할린주 예산 흑자 200억 루블리

재무감독원은이 9개월간의 사할린주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보고를 했다. 주 예산의 수익에 대한 지출액은 945억 루블리(계획상 79.6%)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과 같은 시기에 비해 69억루블리(7.8%) 더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사할린주두마 내 예산 및 세금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사할린 재무감독원 부위원장 타치아나 하르첸코 밝혔다.

가장 많은 수입은 제품분배 협정으로 113억 루블리(72% 증가)였는데 원천소득(법인 소득세)에 대한 수입은 많이(103억 루블리) 감소되었다. 다른 소득에서는 상승률을 보였으며 개인 소득세, 조직단체 재산에 대한 세금 등이 이러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했다. 연방 예산에서 무상 보조금 지출은 75억 루블리로 이는 작년보다 더 증가했다.

9개월간 예산의 지출액은 745억 루블리(계획상 55.9%)에 달했고 지출내역은 주로 <사회복지 정책>(21.3%), <교육>(18.8%), <국가 경제>(17.2), <보건>(13.3%), <주택공공경리>(10.3%)에 배당되었다.

10월 1일 현재 예산은 200억 루블리 흑자(예산 적자 142억)를 보여주었으며 주 예산의 잔액은 369억 루블리에 달했고 그중 305억 루블리는 은행에 예치되었다.

2018년 4/4분기 지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들에 574억 루블리를 지급할 예정이다.

(본사기자)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일본 지원금으로 구입한 약은 사할린 한인 1세 자격 있는 분만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일부 1세 할머니들이 일본의 지원으로 처방된 약을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에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해마다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사관, 그리고 일본적십자사와 한국 적십자사 간 4 측 협정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주한인협회는 의료상담실 운영·약 처방 비용을 일본 총영사관을 통해 받고 있다. 올해 이 지원금(6만6000 달러)은 10월 29일에 송금되었다. 1세 분들은 한인문화센터 내 의료상담실을 찾아 주치의 진단서를 가져와 약을 무료로 받는다. 의료상담실을 통해 현재 스미르니흐한인회 외에 한인회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약을 나누어 받는다. 약을 1년 내내 지장 없이 나누어 주기 위해 일본 지원금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돈을 빌려 약을 구입한다. 올해는 89만2000여 루블리 빌려 약을 나누었다. 그래서 1세 분들이 모든 약을 제때에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한번 거절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유통 기한이 남은 약이어서 이 약을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일본 지원금으로 구입된 약은 사할린 1세 한인 자격이 있는 분만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1세 한인은 1945년 8월 15일 전에 사할린에서 거주하거나 태어난 사람이다.

(배순신 기자 적음)

재외동포재단 이상학 과장, 사할린 방문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 한국 재외동포재단의 이상학 단체지원부 과장이 사할린을 다녀갔다. 방문의 주요 목적은 재외동포재단이 해마다 지원하는 사할린 한인 2세(모국방문을 못하고 사망한 1세 분들의 자녀) 모국 방문단을 인솔하는 데 있었다. 올해 계획에 따라 60명의 2세들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실제로 53명이 방문했다. 이상학 과장은 2차 모국방문단 29명을 한국 적십자사 대표들과 함께 인솔하게 되었다. 방문객들은 7박8일간 일정으로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문화유산 탐방을 했다. 이상학 과장의 또 하나의 목적은 현지 사할린 한인사회

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올해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재외동포재단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연중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사할린 단체, 동아리 등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에 제출하면 재외동포재단에서 사업계획서 내용과 규모를 심의하고 사업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동포사회에서 전방적으로 화합하고 교류하고 단결하는



사업을 많이 지원한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차세대 동포들이 한인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등을 중점 지원사업으로 보고 있다. 한국어와 한민족문화 관련 사업, 문화교류, 차세대 예술단체, 경제단체 사업 등도 주요 지원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재외동포 관련 정보는 코리아넷 웹사이트(www.korean.net)에서 볼 수 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이상학 과장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한인회, 새고려신문사 등 관계자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배순신 기자)

내년 1세 동포 한국 초청진료 사업 확대 한국대표단 사할린 방문

(1면의 계속) 한국 측은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내에 재활센터 또는 의료(보건)센터를 설치하는 제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1세 어르신들의 생각도 조사했다. 한국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신숙호 주무관은 "한국 정부에서 사할린 1세대 분들을 위해서 뭘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인데 현지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나 의견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표명했다. 신 주무관에 따르면 "만남 한 분 한 분이 한국 방문에 대해 뜻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며 적십자사에서도 모국 방문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재단에서도 모국방문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신 주무관은 사할린한인협회와 그리고 1세 동포들과 보건센터 필요성을 공감하고 러시아 정부 측에서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한인문화센터 내 보건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표단과 면담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한국에서의 진료를 약 170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분들이 빨리 모국에서 정밀검진과 진료를 받을 원한다며 의료지원 확대에 대한 바람을 표명했다. 한국대표단은 22일(목) 귀국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2018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성료

16일(금)부터 2박 3일간 제주에서 재외동포재단 장학생 200여명 참석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개최한 '2018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48개국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동행사는 장학생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행사 첫째날(16일, 금)

제주로 모인 재외동포 장학생들은 제주 4.3평화공원에서 환영식에 이어, '제주, 신화에서 역사로'라는 주제 특강,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 및 향후 활동 계획 발표 시간 등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17일, 토)에는 전쟁과 일제 강점기의 상흔이 남아 있는 알뜨르 비행장 및 일제지하방커 등을 방문해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눈으로 확인했다. 또, 감귤 체험장에서 직접 감귤을 따며 제주 지역 농장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마지막 날(18일, 일)에는 성읍 민속마을, 성산 일출봉, 아끈 다랑쉬 오름 등 제주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역사문화 체험을 마쳤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 장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거주국과 모국간의 상생발전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선후배간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모국에서의 학업을 충실히 마쳐 미래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모저모

사할린국립대, 현대과학영화제 개최

11월 28일부터 사할린국립대에서는 이미 정기행사가 된 현대과학영화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의 일환으로 다큐멘터리 3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현대과학영화제는 비영리 사회적 기획으로서 전체 프로그램을 축제조직위원회가 편성하고 대학들과 또 다른 참가자들은 상영하고 싶은 영상들을 직접 선정한다. 대학생들 스스로가 행사 조직위원이 되는 셈이다. 대학생들이 직접 관람객들을 모집하고 상영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토론을 위해 전문가들을 초대한다. 영화상영의 권리를 대학들과 공공기관에 이양하는 아이디어로 요구에 따라 영화제에 되도록 많은 수가 참가하도록 열린 축제를 조성했다. 과학영화제의 목적은 현대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고 관람객들에게 최신 과학의 업적을 소개하며, 자신이 직접 연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올해 영화제 프로그램에는 러시아, 스웨덴, 폴란드, 미국, 영국, 중국 기타 국가들의 영화로 편성되었다고 사할린국립대 홍보실이 전했다. 영화는 포그라니츠나야 거리, 68번지(강당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45-23-10. 자유 입장이다. **СахГУ проведет фестиваль актуального научного кино** С 28 но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чнется ставший уже традиционным фестиваль актуального научного кино (ФАНК),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покажут три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фильма. ФАНК — это некоммерчески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оргкомитет фестиваля формирует общую программу, а вузы и другие участник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бирают фильмы,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казать у себя. Сами студенты

являютс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обытия: собирают аудиторию, формируют соб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казов, привлекают экспертов для дискуссий. Идея передать права на кинопоказы университетам и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ам возникла из-за желания сделать фестиваль открытым для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го количе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Цель дней научного кино — показать современные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фильмы, познакомить зрителей с последни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науки и, возможно, вдохновить их на собстве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программу фестиваля этого года вошли фильмы из России, Швеции, Польши, США,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Китая и других стран,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ГУ. Кинопоказы пройдут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Пограничная, 68 (актовый зал). Подробности по телефону: 45-23-10. Вход свободный.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연말까지 건강검진 받을 기회가 있다** 매년 주민 공중보건지도의 일환으로 희망자들에게 실시되는 무료 건강검진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았다. 2018년에 무료 검진은 출생년도 1916년, 1919년, 1922년, 1925년, 1928년, 1931년, 1934년, 1937년, 1940년, 1943년, 1946년, 1949년, 1952년, 1955년, 1958년, 1961년, 1964년, 1967년, 1970년, 1973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5년, 1988년, 1991년, 1994년, 1997년생의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현재 약 5만 명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이 검진을 통과했다. 심각한 심장혈관질환 외에도 우연찮게 환자들에게서 자각증상도 없던 종양이 발견되었다. "우리는 환자들이 지정 의료기관으로 가서 첫 단계의 검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호전되도록 돕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사할린주 보건부 내과 객원의사인 전 밀라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외래진료소 내과과장이 강조했다

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언을 받으려면 필시 지정 병원에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하고 병원 방문 시 여권과 의료보험증을 지참해야 한다. 검진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철도병원 (우크라이نس카야 거리, 10)에서 받을 수 있다. 내과진료 접수는 15시부터 17시까지. 전화문의는 550-075라고 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У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еще есть время пройт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в этом году** Чуть более месяца осталось у желающих пройти бесплат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здоровья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й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населения. В 2018 году ей подлежат граждане, рожденные в 1916, 1919, 1922, 1925, 1928, 1931, 1934, 1937, 1940, 1943, 1946, 1949, 1952, 1955, 1958, 1961, 1964, 1967,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годах.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прошли около 50 тысяч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омимо серьезных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патологий были выявлены случа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о наличии которых у себя пациенты даже не подозревали. — Мы призываем пациентов подойти в лечебное учреждение, к которому они приписаны, и пройти первый этап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Кому-то это поможет поправить здоровье, а кому-то — спасти жизнь, — подчеркнула главный внештатный терапевт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дующая терапевт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город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2 Мила Тен.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состоянии своего здоровья, а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 консультацию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у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поликлинику по месту прописки. При себе иметь паспорт и полис. Также обследование можно пройти в дорожной больнице на стан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ЖД (улица Украинская, 10), запись к терапевту в регистратуре с 15.00 до 17.00.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550-075,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8면에 계속)

허진원 작가와의 만남

'구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추억'

지난 12일(월) 오후 6시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2층에 있는 주한인회 회의실에서 허진원 작가와 사할린 한인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작가와의 만남은 새고려신문사 주최, 사할린 한국교육원, 사할린주 한인회가 후원했다.



허 작가는 9월 1일부터 사할린에 파견되어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사할린의 곳곳을 다니며 체험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왔다. 그리고 11월 말이면 사할린을 떠나게 된다.

모임 참석자들 중에는 주명수 화백과 조성용 화백, 허로만 시인, 장태호 시인을 비롯한 교수, 사회 각계 인사들 25명 정도가 참석했다. 책상에는 허진원 작가에 대한 이력을 소개한 홍보물이 놓여 있었다. 교육원 측과 주한인회 측에서 다과를 준비하여 화가에애한 분위기 속에 허 작가는 자신을 소개하고, 사할린의 바나(러시아 전통 목욕탕)에서 겪은 경험을 유머스럽게 언급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도했다.

대화를 나누기 전 한국에서 8월 공연에 작가로서 참여했던 자신의 작품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제목은 '사자(死者)의 서(書)(죽은 자가 보낸 편지)'다. 허 작가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쉽게 여기고, 버리는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삼진 안무가의 예술에 대한 균형각각이 빛을 발했기에 가능했던 작품이라고 했다. 공연에서는 장례 전문가에게 역할을 맡겨 죽은 자를 염하고, 장례하는 절차를 표현하고, 영혼이 49일 동안 세상에 머물며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죽은 후의 세계를 상상해 실험공연을 제작했다고 했다.

짧막하게 동영상으로 보여준 작품에는 우울증에 걸린 여인과 그녀를 맴도는 죽은 영혼들이 "죽기도, 살기도 싫어해, 공부도 싫어해, 뭐니뭐니 해도 머니(money)가 최고야!"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죽은 자의 육신은 땅에 누워 있고 혼은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다. '일생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도 100년도 채 못 사는 삶'에서 죽음은 모든 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저승문을 열고 또 다른 삶으로 가는 것인지 묻게 했다. '사자의 서' 작품은 죽음의 무거움을 희화화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문제들을 제기한 듯하다. 다소 무거운 주제에 참석자들 가운데 논의가 있었다. '이 작품을 다른 나라에서 공연을 할 때 이 주제에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다며 한국인이 죽음을 깊고 무겁게 느끼는 반면 일본이나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에 대한 개념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 주제는 좀더 심도 깊게 얘기하고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영상의 일부분만 소개했던 터라 참석자들에게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이 작품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공연 영상을 다운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허 작가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영상을 담고 있는 자신의 유에스비를 여기에 얹어버리고 갈지도 모르겠다."는 표현에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그동안 사할린에서 지내며 활동했던 사진들과 영상을 편집해 만든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첫 장면에는 '구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추억'이란 제목으로 편집된 영상이 흥겨운 노래와 함께 상영되면서 잠시 무거웠던 분위기도 상승되었다. 각종 행사 참석과 허 작가를 흥분시켰던 바다 낚시, 가족들과 함께 했던 모습들, 수업을 기른 미남형의 얼굴을 가진 허 작가의 모습을 드로잉으로 제대로 표현해 준 조성용 화백의 그림, 사할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선과 꼬끼리조개의 사진도 추억으로 담아두었다. '아름다웠던 사할린에서 고맙습니다.'란 인사로 영상은 마무리되었다. 허 작가는 사할린 한인들이 한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담고 곳곳하게 삶의 터전을 다지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의 전통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점에 감탄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범주를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실험적인 작품을 쓰려고 한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라고 했다. 말하자면 인간의 숨겨진 현실을 모방하여 시, 음악, 춤을 더하여 예술작품으로 제작해 무대에 올려 공연하는 방식으로 관객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이야기를 보며 심리적 정화(catharsis)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허 작가는 "대본에 참여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인간을 합부로 그려낼 수 없는 점"이었다며 "사람을 관찰하고 묘사해 내는 데는 또 다른 폭력이 있기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비극보다는 인간을 희화화하는 희극에 더 매력을 느껴 코메디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할린에 러시아어로 소개된 그의 작품 <미사여구없이(Без лишних слов)>가 그중 하나다.

"인간의 부조리(모순)를 남녀 간 사랑 이야기 속에서 코믹하고도 신랄하게 풀어내려고 했다."고 했다. "극작가는 '인간의 고통(아픔)을 먹고 사는 자'라며 작가로서 인간의 고통에 늘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허 작가의 실험적인 공연은 한국에서 그리 흔하지는 않으나 고정관객이 있다고 한다. 작가로서 대본을 쓰고 공연에 올리기까지 때로는 배우 선정과 연출가와의 마찰로 공연 과정상의 난관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홍보지에는 뮤지컬과 연극 중 <미사여구없이>, <마이 버킷 리스트>, <일곱 개의 섬>, <백발백중>, <사랑, 그것은> 5개 작품이 소개되었다.

참석자 중 질문이 있었다. 사할린 어느 곳을 다녀왔냐는 질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다낚시를 할 수 있었던 호호츠크 해를 꼽았다. 코르사코브, 아니와, 타라나이, 스타로뉘스코에까지 다녔고 남은 기간에는 북부 노글리키 등을 다녀올 계획이라 밝혔다.

사할린의 예술가와 작가들을 역으로 한국으로 초청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허 작가는 한국의 레지던스 담당자 몇 분을 알고 있으니 그분들께 이런 사항을 전하겠다고 했다. 대화 중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은 사할린한국교육원의 김주환 원장이 풀어서 설명하기도 했다.

허 작가와 대화를 나누어본 사람들은 한 번쯤 웃었을 거라 본다. 유우머와 재치를 결집인 대화는 누구에게나 마음의 답을 허물게 하는 힘이 있다. 인간의 아픔과 고단한 현실을 주제로 거기서 웃음의 실을 뽑아내려는 허 작가의 자기와의 싸움과 노력에 감명을 보낸다.

모임이 끝난 후 사할린주 한인회 측에서는 사할린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아 출간된 '운명의 문양(узоры судьбы)' 책을 한 권씩 나눠 주었다. 책 속에는 사할린에 대한 소소한 추억과 감상이 김 아나톨리(1939 -)의 단편, 김춘선(1918-1973) 시인, 허로만(1949 -) 시인, 장태호(1950 -) 시인, 양 세르게이 시인의 주옥 같은 작품들 속에 담겨져 있다.

(취재: 글/박혜신, 사진/이예식)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사할린한인협회

693000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프로스펙트 미라 83-A. 대표번호/팩스: (4242) 510-480
6930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Мира, 83-А.Тел./факс (4242) 510-480. E-mail: roosk@mail.ru

입 장 문

지난 여름(7.30) 우리협회의 호소문 이후 쏟아진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비방과 모욕, 선동은 사할린 동포사회 전체에 큰 상처와 충격을 준 것은 물론, 한-사할린 내 우리 동포사회의 위상을 크게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신문고가 오늘의 사할린에도 있었다라면 가족이 찢어지도록 치고 또 쳤을 것이며, 그동안 솔하게 쓰고 지운 눈물의 호소문과 입장문은 책으로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사할린 동포사회에 대한 거짓 비방과 선동이 도가 지나쳐, 그 동안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지 않고자 공개하지 않았던 몇 가지 주요내용에 대한 입장을 이제서야 밝힙니다.

1. 추모관 건립에 대한 입장

- 추모관 건립은 2014년 '사할린 한인 역사기념사업회' 출범 당시 공식 사업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위령비 제막식과 추모관 착공식 참석 당시만 해도 '기념사업회' 공동협정은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무색하게 계속 일방적인 행보를 하는 한국한인회장으로 인해 2017년 8월, 우리 협회는 사할린한국한인회와의 공동협력협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우리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묵인하고, 오히려 한국한인회장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부산 측의 태도로 인해 2018년 2월 '기념사업회'까지 탈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세 내용 별첨)

- 그런데 부산 측은 2015년 8월 추모관 착공식 참석 사실만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낭 말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공동 창립과, 추모관 착공식 참석 사실은 온라인에 몇 자만 검색하면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사건들의 실체와, 우리가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것의 진의를 우선 파악하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추모관 건립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념사업회' 설립 당시 출자금으로 만 달러를 출연하였으나, 탈퇴 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념사업회'의 탈퇴는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사할린 한인대표를 사칭하던 한국한인회장과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 악화를 시작으로, 그 상황에서 사할린 한인 역사기념 사업을 위해 사할린한인협회가 아니라, 사할린한국한인회장의 편에 선 부산 측과도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즉, '기념사업회'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할린 한인동포 대표단체로서의 비동의를 의미하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사업회 탈퇴 후, 우연히 추모관 준공기념식 홍보포스터를 보고 인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영리단체와 사할린한국한인회장이 좋은 의도로, 성공한 개인사업가의 사유지에, 무연고 한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을 짓는다면 우리는 고마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1) 좋은 의도 2) 개인 사유지 3) '무연고 한인 희생자' 라는 조건 모두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추모관인지, 추모관을 위한 추모관 인지는 머지 않아 그 진위가 밝혀질 것입니다.

2. 사할린한인협회의 역할과 대표성에 대한 입장

사할린한인협회가 지금껏 한 일이 무엇이나는 질문에는 여러 대한민국 정부·비정부 기관(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등)과 우리 사할린한인동포, 그리고 역사가 직접 답해줄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새고려신문, 우리말방송, 그 외 한국 기사 등) 또는 협회의 러시아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아하게도 한국한인회장이 공동 참여한 사업에서만 유독 우리 협회의 역할이 축소·비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궁금합니다.

사할린 제1공동묘지 위령비 설립 당시에도, 인·허가를 위해 누가 동분서주 했는지, 바닥 기초공사 후 상의도 없이 누가 야밤에 위령비를 세웠는지, 왜 위령비가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에 가서 서게 됐는지, 어쩌서 사할린한인협회의 이름은 빼놓고 우리의 참석은 필요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사할린한인협회는 3만 여의 사할린 동포(사할린주 외 전 러시아 및 CIS지역 사할린동포 포함)를 대표하는 단체로, 주요 의사결정은 사할린주 17개 지방한인협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산 측의 표현처럼 '박순옥 일당'의 소수 의사결정이 아님을 밝히며, 필요한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 단체대화방의 의견을 공개할 의사도 있습니다.

참고로 추모관 준공식 행사 참석 관련 전체회의를 소집했을 때도, 준공식 참석에 대한 반대 의견이 17개 지방한인회 중 15개로 압도적이었음을 밝힙니다.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Т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ЧЕЛОВЕКА К ЗАМЕЧАТЕЛЬНОМУ ПИСАТЕЛЮ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рганизовала встречу с драматургом из Южной Кореи Хо Дин Вон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сатель сегодня хорошо известен у себя на родине такими постановками, как «В яблочко», «Без лишних слов», «Семь островов», «Любовь, это...» и другими.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уется молодежный мюзикл «Список моих желаний», песни из которого исполняются и за пределами театров. Набирают популярность произведения Хо Дин Вона и за рубежом: актеры играют мюзиклы, комедии и драмы на сценических площадках Франции, Японии и Китая. А изданная в 2016 году пьеса «Без лишних слов» (вошедшая в состав одноименного сборника) с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доступна читателям 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переводе Ден Соён.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драматург рассказал не только о том, как создаются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 какой замысел он вкладывает в них, но и о том, что значат для него такие имена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как Достоевский и Чехов. На взгляд Хо Дин Вона, материальные ценности созвучны духовным и душевным желаниям, поэтому гость говорил не только о «высоких» материях, но и о том, что удалось ему увидеть на Сахалине – от исторических центров и музеев до рыбалки и даже посещения бани.

В ходе встречи упоминалось и имя изве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Кан Сок Ген, гостившей на Сахалин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давшей положительную рекомендацию Хо Дин Вону для поездки на остров в решении комитета искусства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бравшиеся в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слушатели (студен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и те, кто неравнодушен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обменивали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фрагментов увиденного на экране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й постановки «Послание мертвеца», дискутировали, 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представлениями о современной драме. Но более всего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волновал вопрос, как отразится трехмесячное знакомство с островом в дальнейшем творчестве Хо Дин Вона. Ответ на это драматург пожелал пока придержать и не строить больших планов. Не все обдуманное и написанное имеет право на существование.

По мнению драматурга, только «замечательный человек» может создать «замечательные драмы». И ярким примером такого соединения становится Чехов,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открытый Хо Дин Воном и, возможно, ставший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тератора своеобразным творческим ориентиром. Детские годы Чехова и история «Трех сестер» – это то, что волнует драматурга и сегодня, что переживается и осмысливается им также, как и работа с собственным текстом, наблюдение за актерами, исполняющими роли в его постановках, поиск реакции зрителей на все происходящее на сцене.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новая книга Романа Хе

7 декабря в 18:30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Романа Хе,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эта, переводчика, автора-исполнителя, члена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Встреча приурочена к выходу новой книги - двухтомника «Нота ЛЯ», презентация которого прошла недавно в Москве в доме книги «Москва» на Тверской и в библиотеке им. Добролюбова на Смоленской. И сейчас книг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ервый том под названием "Нота Ля" вошли соб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автора, второй том (называется "Светлая ночь") составлен из переводов сиджо - средневековых корейских трехстиший.

Представляя читателям книгу, Елена Камбурова, певиц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Московского театра музыки и поэзии, написала: «...эта книга соединит без числа те души, что не разуверились в дружбе, верности, искренности, те, что слышат музыку серебряных лунных лучей, натянутых струнами на гитару-гусли, вдохнут аромат ромашковых холмов, те, что сможет оценить как огромное великодушное поступок городского сумасшедшего, дарящего как великую драгоценность годные только на растопку картонки, увидеть за коллаженными рубцами пожарного прекрасное человеческое Лицо».



7 декабря, 18:30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Текст позиции

30 ию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обращен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адрес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посыпались клевета, оскорбление, подстрекательство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вижение взаимопомощи нации г.Пусана». Сообщения обличитель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глубоко ранили и потрясли все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дорвав авторитет сообщества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ак на Сахалине, так 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Если бы набат Силлы был на Сахалине, то били бы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кожа набата не порвалась. Написано множество обращений и разъяснительных записок. Не хватит целой книги, чтобы разместить такой огромный объем обращений. Сегодня ложь, клевета, подстрекательство, проникши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диаспору, перешли недопустимые границы.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нападки подобным образом, считаю, некорректным действием. Поэтому публично заявляю главные пункты моей позиции:

Позиция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Дома памяти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а памяти в 2014 году явилось одним из официальных планов начала работы Общества памят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амках совместного договора между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организацией «Движение взаимопомощи нации г.Пусана». Еще в августе 2015 года договор имел силу и предполагал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амятника на первом городском кладбище, а также в церемонии закладки камня п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а памяти. Но в августе 2017 года, когд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 свои действия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документ начал терять свою юридическую силу.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асторгла договор о совмест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есмотря на наши многократ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Движение взаимопомощи нации г.Пусана» проявляла молчание и поддерживала позицию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а Сахалине. Учитывая некорректное повед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ыла вынуждена выйти из Общества памяти в феврале 2018 года.

- Далее организация «Движение взаимопомощи нации г.Пусана» распустила слух о том, что мы н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церемонии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ма памяти. Однако, факты о совместном создании Общества памяти, участия в церемонии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уществуют, они доступны всем в интернете. Отсюда стоит понять истину, что нам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выйти из Общества памяти по причине всех случившихся обстоятельств.

-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иваем,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была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ма памяти. Более того, в момент создания Общества памяти, мы проинвестировали 10 000 долларов США в качестве вступительного взноса. Но после выхода из Общества нам до сих пор не вернули эту сумму.

(Окончание на стр.7)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бюджет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г. Хабаровск)
Факульт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т набор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 **Сроки обучения:** с 02.01. 2019. по 05. 05. 2019.
- **Форма обучения:** очно-заочна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Кол-во часов:** 252 час.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5мес./ 3 сессии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учения выдается диплом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о присвоении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е –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к высшему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среднему. Диплом даёт прав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истем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Требования к слушателям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по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е – портфолио
- Условие - прохождение аттестации



e-mail: Ase65@bk.ru
https://vk.com/ase_sr
8962 154 88 65

Приём заявлений и докумен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4 ноября 2018, - с 10:00 до 14:00

1 и 8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 с 10:00 до 14:00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Сахалинская, 219, 2-й этаж,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ВИФЛЕЕМ» (район Владимировки, остановка «Спутник»)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ам:

+ 7 962 154 8865 (короткий 488-865) – Наталья Геннадьевна

+ 7 924 481 4056 – Юрий Андреевич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ООН обсудили проблему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Комитет ООН по насильственным исчезновениям озвучил мнение о недостаточности компенсаций, выплаченных Японией жертвам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во вторник агентство Киодо цусин. В комитете выразили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считает данный вопрос решённым. Была подчёркнут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о этой теме и раскрытия информации о тех событиях.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жертвы данного преступления не получили должной компенсации,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венцией по защите от насильственных исчезновений. Комитет провёл проверку по данному делу в начале ноября. Япония выступила против таких выводов, обратившись с протестом в Управление Верховного комиссара ООН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Швеция выделила 4,7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КНДР

В этом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Швеции выделило 4 млн 700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КНДР.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20 ноября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910 тыс. долларов из этой суммы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ООН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Сообщается также,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швед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посещали КНДР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с реализацией гуманитарных проектов. Помимо этого, с 15 по 19 ноября Пхеньян пос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шведског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Ева Маргарита Уолстрем.

Продажи в беспощинных магазинах РК увеличились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продажи в беспощинных магазинах РК выросли на 28,6%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1 млрд 438 млн 190 тыс. долларов. Это шесто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бора статистики.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едоставлены 20 ноября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магазинов беспощинной торговли. С января по сентябрь этого года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2 млрд 917 млн 360 тыс. долларов, что больше рекордной отметки 12 млрд 800 млн долларов, зафиксированно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агазинов сообщили, что нынешнее повышение продаж связано с активностью китайских челночных торговцев, которая увеличилась, несмотря на сохранение мер давления на РК со стороны Пекина в ответ на размещение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ПРО THAAD.

Роман Син Гён Сук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будет экранизирован в США

Роман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Син Гён Сук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будет экранизирован в США. Компания Blue Jar Pictures снимет по ней телесериал. Литературное агентство KL Management, представляющее интересы Син Гён Сук, подписало контракт со съёмочной компанией. Это первый случай, когда по произвед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автора в США снимается телесериал. Роман вышел в РК в 2008 году и сразу приобрёл огромн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Он был переведён на ряд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и напечатан в 36 странах, в том числе в России. 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романа вышел в 2012 г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увеличивают расходы на социальные нужд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асходы 197 крупнейших компаний РК на социальные нужды выросли на 30%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Федерации корейских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2 млрд 421 млн долларов. В 2016 году деловые круги резко сократили средства на социальные нужды из-за нестабиль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стране на фоне импичмента тогдашнему президенту Пак Кын Хе, а также вследствие вступления в действие антикоррупционного закона. Но сегодня ситуация постепенно меняется.

В РК растёт популярность эссе

В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пятое ноября продажи эссе выросли более чем в 1,7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едоставил торговый сайт Interpark.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62% продаваемых эссе содержат сюжеты для исцеления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ереутомлённых в результате слож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Например, постоян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читателей пользуются эссе «Медвежонок Пух: счастье есть каждый день» и «Хочу умереть, но хочу ттокпокки». Популярность эссе связана с растущим стремлением простых граждан к ведению скромной жизни.

(RKI)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создаст фонд поддержки инвестиций в Россию

Для поддержки работ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ацеленных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проектов в России, СНГ, странах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Монгол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здаст специальный фонд. Новая структура появится к 2022 году, в нее будет инвестировано 10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заяв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анспорта и земельных ресурсов РК.

В ведомстве добавили, что создаваемая организация будет носить название "Глобальны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й фонд". Аналогичный фонд будет создан и для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нацелены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транах АСЕАН и Инд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амерено оказывать ак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местным фирмам, действующим на северном (Россия, СНГ, Монголия, Восточная Европа) и южном (страны Южной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аправлениях.

Что касается "северного" фонда, то в ведомстве добавили, что приоритет будет отдаваться поддержке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транспорта, энергетики, в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развити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умных" объе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Евраз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обещали также повысить размеры суммы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ую выделяют компаниям, впервые выходящим на упомянутые рынки. Рецепторами программ поддержки в рамках фонда будут выступа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и компании.

Напомним, что 7-9 ноябр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хохане прошел 1-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форум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17 регионов Южной Кореи и девят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Ф. В форум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и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вший к актив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4 ноября в Сингапуре на полях саммита АСЕАН состоялся российский-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Мун Чжэ Ин обсудили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связей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В Корее одноклассники обвиняются в убийстве сына россиянки

В Южной Корее четверо школьников подозреваются в убийстве своего одноклассника, мать которого была россиянкой. Трагедия взбудоражила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усскоязычной общины. Люди требуют ужесточения наказания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и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асилия в местных школах. На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явилас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петиция, получившая множество отклик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13 ноября в шестом часу вечера в одном из районов города Инчхон. Четверо учащихся школы средней ступени в возрасте 14-15 лет отобрали у 14-летнего одноклассника электронные сигареты, которые он курил, сказав, что отдадут их на крыше 15-этажного жилого дома. Когда удающий поднялся туда, то его начали избивать. Если основываться только на объективных данных, то через полтора часа он упал с крыши дома и погиб. Одноклассники спустились вниз, постояли вокруг него, а полицию вызвал охранник дома, обнаруживший тело. Полиция вскоре арестовала всю четверку.

Сначала школьники придерживались версии, что парень решил покончить с собой, а они пытались его удержать, но не смогли. Однако вскоре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до падения погибшего избивали почти полтора часа. В итоге школьники сознались, что решили "проучить" одноклассника за то, что он якобы плохо высказался о внешности отца одного из школьников. При этом они отрицают, что столкнули одноклассника, утверждая, что он в итоге спрыгнул сам.

Как сообщили СМИ, погибший являлся сыном россиянки. Отец его кореец, но мальчик жил только с матерью. На одном из сайтов появилось сообщение от знакомого погибшего, который вместе с ним ходил в одну и ту же церковь. По его словам, над мальчиком в школе ранее издевались из-за его "некорейской" внешности. Полици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едет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нцидента.

Это происшествие взбудоражило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став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новостей последних дней. Сами корейцы признают, что насилие в школах - это давняя проблема, которую власти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система пока так и не могут решить.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требует ужесточения наказания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преступников, требуя судить их как взрослых и официально предъявить обвинения в убийстве.

На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оявилась петиция, в которой требуется провести самое тщатель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наказать малолетних преступников в полной мере. Петицию подписали почти десять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огласно правилам, если петиция наберет более 200 тысяч подписей, 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должна будет официально отреагировать на нее. Власть заявили, что выплатят пострадавшей материальную компенсацию и окажут иную финансовую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помощь.

Большой отклик получил инцидент и в русскоязычной общине Кореи. У многих 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ети также учатся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Южная Корея исторически является моно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ной, но с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давних пор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стало быстро расти. Далеко не всегда местное общество мягко принимае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культур. Вместе с тем, власти стараются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выходцы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которые уже стали гражданами Кореи, смогли жить нормально и влились в общество.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так называют в Корее семьи тех, где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 иностранец) являются большим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а в целом у Кореи нет выбора кроме как больше принимать выходцев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По различным данным, в Корею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70-80 тысяч людей,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выходцами из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기념 사할린주 태권도 대회

일시: 2018년 12월 9일(일요일), 10:00

장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주최: 사할린한국교육원

주관: 오스트로브 무술센터

후원: 사할린주한인협회

«Фестиваль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ТХЭКВОНДО)»

В честь 25-летия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9 декабря 2018г., 10:00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Организаторы: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Цент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4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хивная служб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а 80-летний юбилей

По случаю этой да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собрание, участие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сотрудни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архивов области, ученые и краевед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духовенства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 создан 13 ноября 1938 года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В 1947 году,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хив был перемещен в новы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Сегодня в штате архивной служб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около 200 человек, а общий объем документов фонда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миллиона единиц хранения. Предназначение службы, как и 80 лет назад, остаётся неизменным – сохранять и доносить до потомков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Юбилей – прекрасный повод отметить бесценный, самоотверженный, кропотливый, истинно уникальный труд многих поколений сотрудников архивов. За прошедшие годы был сформирован фонд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источников, которые повествуют о становлении и развит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зволяют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богатейшему культурному, духовному наследию нашего края. Убежден, что архивная служб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и впредь достойно выполнять свою высокую миссию, - поздравил собравшихс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нтон Зайцев.

В рамках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ось чествование ветеранов архивной служб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граждение сотрудников архивов, добившихся успехов в работе.

Первые семь домиков новой горнолыжной деревни на склонах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ведут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феврале 2019 года

Построенные объекты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приема участников перв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зимних игр «Дети Азии».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выездного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рнолыжной деревни на склоне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едет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Шале» - резидент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 «Горный воздух». Общая площадь застройки составит 9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а этом участке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местить 24 шале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спортсменов и туристов, а также кафе, ресторан и клубный дом площадью 4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нем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фитнес-центр, бассейн и лаунж-зона для гостей курорта. Новый комплекс расположен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лыжных трасс, в 10 минутах ходьбы от нижней станции подъемников.

- В 2019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горнолыжной деревни - семь домов и пункт питания. Э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приема гостей перв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В комплексе смогут разместиться более 160 человек. А уже в окончательном виде горнолыжная деревня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к зимнему сезону 2019-2020 годов, - сказал Антон Зайцев.

- Сегодн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Уже построено более 35 километров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Создание гостинич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горных склонов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соответствия н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мировым стандартам. Уверен, что он будет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обавив, что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ожидается создание 5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ТОР реализуется 18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с общим объемом инвестиций 21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и планами создания 1279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Сахалин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лучили дипломы 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е в рамках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рограммы

Документы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выпускникам вруч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Президент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ействует в нашей стране с 1997 года и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дготовку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управления и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Каждый год ее выпускниками становятся около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е менее 30. Они получают теоре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а также проходят стажировку на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 В 2017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е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ы стажировались в Японии. Они выбрали т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как «Сфера услуг», «Модернизация медицины», «Туристический бизнес», «Управление персоналом», «Городск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Логистика». При этом в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все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бирает сферу туризма. И это закономерно. Ведь туристическая отрас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находится на подъеме. Пополнение этого сектора новы-

ми кадрами, безусловно,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и в целом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 сказал на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дипломов Алексей Белик.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выпускники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рограммы всегда востребованы. Они работают в орг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ногие из них занимают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а также включены в резерв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кадров региона.

По итогам обучения 27 выпускников получили дипло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15 -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нститута ЛИНК», еще пять - удостовере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ндрей Степнов,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по коммер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компании «Геофизтех», выпускник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нститута менеджмента «ЛИНК» помимо диплома получил грамоту и памятный подарок.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им иннов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Локальный сейсмический мониторинг», связанный с оценкой состоя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сле сильных землетрясений, признан лучшим Ассоциацией участнико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рограммы.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по завершении вручения дипломов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езидент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оказала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Ее реализация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управления предприятиями и обеспечивае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управленческими кадрами.

За три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делено более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бюдже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льготной ипотеки

Займы от Сахалинского ипотеч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зволили улучшить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почти 500 семей. Купить квартиру, используя льготный кредит, могут сахалинцы, нуждающиеся в улучшении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в их числе жители арендных квартир.

- За неполных три года в 14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построено 36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для сдачи в коммерческий найм. Новоселами стали 1026 семе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работники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ипотечного агентства Геннадий Осипов. -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зводятся еще 45 арендных домов. Спрос на такое жилье велик. Через полгода арендаторы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право выкупить их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с помощью льготных кредитов,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Для семей с одним ребенком ставка составляет 7 процентов, с двумя детьми - 3,5 процента, с тремя - 0 процентов. Нулевая ставк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действует и для жителей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Поронай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программ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рендных домов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Накануне там сдали очередные 2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на 40 квартир.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по адресам улица Гагарина 30 и 32А уже готовы к заселению. Возводить их нача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ста под застройку подбирались с учетом развитой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ядом расположены школа, больница, магазины и музей. Квартиры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сдачи в аренду врачам, педагогам, работникам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оенкомата, сотрудникам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Дома на улице Гагарина – это уже третья очередь застройки, реализованная в Поронайске Сахалинским ипотечным агентством. Первый 27-квартирный жилой дом был сдан в июне 2016 года. Вторая очередь - это 24 и 30-квартирные арендные дома, заселенные в январе 2017 года.

- Это уже 5 дом, который сдается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Сама программа появилась в 2015 году. Сегодня она распространилась на абсолютное большинство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и работает даже на Курилах. Уже больше тысячи семей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жить в современных квартирах, - 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принявшая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ввод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остроек. -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поронайцев, получивших ключи от комфортного жилья.

Аренда однокомнатной квартиры в новостройках составит 6 тысяч рублей, двухкомнатной – 7 тысяч, трехкомнатной – 8 тысяч рублей. Это примерно вдвое ниже среднерыночной стоимости. При этом, начиная с 2016 года, до половины затрат арендаторам квартир компенсируется за счет местного бюджета. Ежегодно на эти цели выделяется около одного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Благодар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ам жилья в районе удается эффективно решать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врачей и учителей, - отметил глава Поронай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лександр Радомский, - А от кадров зависит многое. К примеру, благодаря высокой укомплектован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им персоналом, у нас начала снижаться смертность.

Первый урожай овощей собран в новом тепличном комплексе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Около 1,5 тонны томатов и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килограммов

огурцов получено на новом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и, которое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этого года открылось в селе Колхозном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дукция уже поступила в торговые точки Невельска. До конца года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планируют получить до ста тонн продукции и расширить географию поставок.

Напомним,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й комплекс площадью три гектара с пленочным покрытием был построен по итальянской технологии. Теплицы устойчивы к снежным заносам, морозам и ветровым нагрузкам. Всего в проект вложено около одного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это част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й культуры для выращивания были выбраны томаты – пока что пяти сортов. Рядом с ними в порядке эксперимента агрономы высадили огурцы двух сортов.

- Первый урожай для нас – яркое и радостное событие. Как и во всех тепличных комбинатах, он собирается по нарастающей. Самое главное – мы смогли вырасти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ую продукцию, которую, надеюсь,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оценят сахалинцы. Сформирован коллектив специалистов. Впереди – наращивание объемов производства. Кроме того, хотели бы реализовать еще один амбициозный проект – возвести тепличный комплекс для выращивания клубники,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Невельский АгроСнаб» Денис Кан.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добавил он, планируют ежегодно получать 1 350 тонн томатов продукции, собирая до 40-45 килограммов овощей с одного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закрытого грунта.

- Появление такого комплекса – это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2018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лучить со всех предприятий около 7,2 тысячи тонн овощной продукции, это на 1 тысячу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Ещё три года назад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жителей собственными тепличными овощами составляла 48 процентов, а в этом году мы выходим на 100 процентов,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Кузьм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финале IV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а среди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Москве с 20 по 23 ноября. Туда приглашены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чемпионатов из 84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12 сахалинцев выступят в компетенциях: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баз данных», «Документацио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управления и архивоведение», «Портной», «Малярное дело», «Поварское дело», «Вязание спицами», «Вязание крючком», «Бисероплетение», «Издательское дело», «Робототехника», «Дизайн персонажей/анимация».

В состав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такж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психолог, медицинский работник и сурдопереводчик. За каждым конкурсантом закреплен личный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 «Абилимпикс» – это олимпиада возможностей, которая дает шанс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обществе, получить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и применить их в жизни,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Елена Бабина, возглавившая островную делегацию. - В прошлые годы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в финале чемпионата три медали. В этом году ребята снова настроены на то, чтобы показать все свои умения и таланты. Они усердно готовилис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торые тож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чемпионате в качестве экспертов.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мастерство буду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три категории участников: школьники (от 14 лет), студенты (от 16 лет) и специалисты (до 65 лет). Соревновательная часть будет включать 57 основных и 14 презентационных компетенций.

Конкурсные задания для финала были разработаны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ценивать участников будут опытные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рты, среди которых есть призер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В программе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едусмотрена также деловая часть – обсуждение проблем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обучения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олодых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мастер-классы,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Запланирована всероссийск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развитию инклюз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и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вижению «Абилимпикс» Россия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в 2014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Фонда поддержк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е – обществу». Чемпионат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Доступная среда» и является сегодня единственной площадкой в стране, где молодые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могу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навыки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в том числе и потенциальным работодателя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입 장 문

(3면의 계속)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측은 근거없는 모략으로 박순옥 회장(2016.12. 임기시작)은 물론, 사할린한인사에 굵직한 업적을 남긴 전 한인대표들까지 ‘앵벌이’, ‘땡깡’, ‘조폭’, ‘깡패’, ‘뽕땅’ 같은 저급한 발언을 불사하며, 모욕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추정적 근거로 전 한인회장들과 한인사회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과 공격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우리 사할린 한인은 광복 이후 조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기까지 반 세기 동안, 낯선 동토의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뿌리내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할린의 각계각층에서 한인의 위상을 떨치고 있으며, 주정부와도 돈독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에서도 지원받고 있는 사할린 내 최대 소수 민족 디아스포라입니다. 한 많은 우리 조상들의 삶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모국의 지원을 그들의 표현처럼 거지처럼 구걸한 적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부산 측의 갑작스러운 ‘화해 제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관계정상화를 원한다면 다음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1. ‘부산’ 측의 모욕과 비방(입장문, 논평, 그 외 다수 기사 및 선동, 고발 등)으로 상처 받은 사할린 동포사회와 단체장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2. 사할린 한인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협조하는 많은 기관과 개인을 거짓과 비방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을 멈추시오.
- 특히, 귀 단체의 모략에 직장을 잃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사할린한인협회를 숭선수범하며 돕던 박현성(전 삼성물산 사할린사무소)에 사과하고, 그가 입은 금전적 도덕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십시오.
- 또한, 사할린 국영텔레비전라디오공사 ‘우리말 방송’ 편집국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거짓 보도를 구두와 서면으로 인정하고, 고소 취하는 물론, 연합뉴스와 우리말방송, 새고려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 국장과 방송공사 대표에게 공식 사과하십시오.
3. 추후 사할린한인협회와의 협의 없이 사할린 동포사회의 일에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공개하십시오.

2018.11.19. 사할린동포사회를 대표하여, 사할린한인협회장 박 순 옥

(첨부) 분쟁 관련 주요 사건·사실

이 외에도 관계 악화에 일조한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의 모욕적인 메시지들(문 대통령 및 청와대와의 사적 친분 언급,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 한국한인회장을 잘 따르라는 등 사할린 한인사회를 무시하는 발언, 사할린역사기념관이나 추모관, 부산 측과 무관한 일에도 무조건 현 회장을 옹호하는 태도 및 명령투의 발언 등)과 그 간 한국한인회장이 한인회장대회 지역분과 협의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사할린한인협회의 명칭 변경에 대해 통보한 문서(2018.5.19), 추모관 참석 여부 결정을 위한 사할린한인협회 긴급총회 결의문(2018.8.11),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을 소개하고, ‘기념사업회’ 의 공동발기인이었던 지구촌동포연대가 사할린한인협회와 함께 ‘사할린역사기념사업회’ 동반 탈퇴 의사를 표명한 문서(2018.8.27) 등 많은 첨부문서가 있지만 생략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분은 별도 연락 바랍니다. (사할린한인협회 roosk@mail.ru)

- 2014.1.15. 사할린한인협회(당시 회장 임용군), 사할린한국한인회(당시 회장 손병덕)와 공동협력협정 체결
- 2014.10.1. 사할린한국한인회 2기 출범(회장 현덕수)
- 2014.10.12. 사할린한인협회,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및 국내 4개 단체(천태종 무원스님, 삼주그룹, 로덴치과 원장, 지구촌동포연대)와 ‘사할린한인역사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 친목단체였던 한국한인회(회원 30여 명) 현 회장은 煎 회장의 공으로, 회장이 되자마자 사할린동포 관련 굵직한 행사 등에 함께 초청받고 한인협회와 나란히 사할린한인 관련 사업에 참여
- 2014.11.8. ‘사할린한인역사기념사업회’ 설립 합의
- 2015.4.14. 외교부 산하 ‘(사)사할린한인역사기념사업회’ 설립
- 2015.8.11. ‘일제 강점기 사할린 강제 징용 희생자 합동추모비 제막식 및 위령제(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지)’ 및 ‘일제 강점기 사할린 강제 징용 한인 희생자 추모관 기공식(록산원)’ 공동 개최
※ ‘역사기념사업회’ 창설 후 이 시기까지는 ‘부산’ 주최, ‘사업회’ 공동 명의 주관으로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제1공동묘지 추모비 설립 준비과정에서 한인협회와 한국한인회 간 불협화음 발생. 결국 공동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만들어 온 추모비에는 한인협회명이 일방적으로 배제된 채 현재에 이름.
- 2017. 여름 한국한인회, 사할린청소년모국방문캠프 단독 추진
- 2017.7. 한국한인회, ○○시 시의회 대표단 단독 영접(호소문에 언급)
※ 제1공동묘지 추모비 설립 준비시기부터 자신의 사익과 명예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던 현 회장은 번번히 단체 간 공동협력협정 내용을 위반하여 관계는 더욱 악화됨.
- 2017.8.초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리인수 사무총장이 ○○시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현 회장을 옹호하기 시작.
- 2017.8.6. 제4회 일제 강점기 사할린 징용 희생자 추념식 개최
※ 한인협회는 동 행사를 계기로 ‘부산’측의 공식적인 입장과 관계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섬. 그러나 현 회장 측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부산’의 입장만 다시 확인함.
- 2017.8.11. 사할린한인협회, 사할린한국한인회와의 공동협력협정 파기(새고려신문 공식 입장 발표)
- 2018.2.9. 사할린한인협회,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역사기념사업회’ 탈퇴의사 표명
- 2018.7.초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추모관 준공식 및 역사추모기행 홍보
- 2018.7.30 사할린한인협회, 호소문 배포
- 2018.8.1.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입장문 배포
- 2018.8.23.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논평 발표
- 2018.하반기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맥을 이용하여 청와대는 물론,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등 사할린동포와 관련된 모든 단체에 사할린한인협회(박순옥 일당 지칭하며)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헐난하고 있으며, 한인협회 청년회장으로 숭선수범하던 박모씨를 모략하여 직장(삼성물산)을 잃게 하고, 러시아 내 유일한 우리말방송을 지켜오던 김모 국장을 지원금을 편취한 파렴치범으로 고발하기에 이름.

Текст позици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4)

- С выходом из Общества памяти началось осложн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щест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а Сахалине,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лял себя президентом сахалин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целях выгоды и честолюби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ним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В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организация «Движение взаимопомощи нации г.Пусана» встала на сторону Общест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Хотя следовало бы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проекта памят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тать на сторону РООСК. Поэтому из-за невозможности дальней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Движение взаимопомощи нации г.Пусана» было принято такое решение. То есть это означает несогласие лидер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 методом работы Общества памяти, с проведени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 завершен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ма памяти узнали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афише.

-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а Сахалине построили Дом памяти для безродных корейских жертв на участке частного владения успешного бизнесмена. Если это было сделано из хороших побуждений, то мы за это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ны, но ...

- 1) Хорошие побуждения
- 2) На участке частного владения
- 3) Безродные корейские жертвы

По всем этим положениям возникают вопросы. На самом ли деле этот Дом памяти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ли же этот Дом - для иных целей? Правда выяснится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Позиция о роли РООСК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е

- На вопрос о том, какая работа проделан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ветят различ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и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безопасности, Красный Крес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фонд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наши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А также история ответит прямо:

* В интернете (газета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римал Бансон,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татьи) и на нашем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много материалов и статей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ОСК

- Странно, что именно при совместном участии в каком-либо мероприятии роль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униженно уменьшена. Нам тоже хочется знать, в чем причина.

* Стоит вспомнить, когда надо было установить памятник на первом городском кладбищ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то ходатайствовал по разрешению на установку этого памятника, и кто посл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установил памятник глубокой ночью без согласования. Почему памятник стоит не на середине, а с краю. Почему имя РООСК упущено в списке, а наше участие было необходимым.

-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это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представляет более 30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этом числ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и странах СНГ), принимает главные решения с участием 17-ти районных отделений. По мнению организации «Движение взаимопомощи нации г.Пусана» решение принимается единолично, т.е. «одной партией Пак Сун Ок». Хотя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сле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ов президент имеет право огласить мн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 Для справки: при обсуждении вопроса об участии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Дома памяти из 17 районных отделений 15 - подавляющим большинством были против.

- Однако организация «Движение взаимопомощи нации г.Пусана» прибегла к необоснованным интригам и вульгарным высказываниям: 앵벌이 - попрошайка, 땡깡 - пустозвон, 조폭-гангстер, 깡패-хулиган, 뽕땅 - заначка в адрес действ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начало работы на посту с декабря 2016 года), а также предыдущих лидеров, оставивших большой след в истории диаспоры, тем самым оскорбив и унизив их достоинство. Мы требуем немедленно прекратить оскорбитель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и нападки в адрес все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и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 М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живя полвека в чужой стране, смогли своими силами крепко пустить корни. Повысили статус диаспоры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Сахалина. Заложили добрые отнош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Област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Мы – самая большая диаспора из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на острове, получаем поддерж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оссии на законном основании.

- Для многострадальных наших предков мы обращались с требованием компенсации, но никогда как нищие не попрошайничали у родины. Согласно вышеизложенным причинам мы не можем принять предложение о примирении. Но предлагаем следующие условия, если вы желаете нормализ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ринести официальные извинения мне и вс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Сахалина за нанесенные вами оскорбления,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в вашем письме на странице вашего фейсбука 01.08.2018г.;

Принести извинения Пак Хе Сону и возместить ему материальный и моральный ущерб за необоснованные обвинения в его адрес, ставшие результатом лишения отца двоих детей работы в Сахалинск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Самсунг»;

Признать все устные, письменные обвинения и исковые заявления против редакции Уримал Бансон ГТРК Сахалин клеветой и ложью. Аннулировать исковые заявления и принести официальные извинения шеф-редактору Ким Чун Дя и руководству ГТРК Сахалин на сайте агентства Енхп Ньюс, Уримал Бансон,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редоставить официальное письменное обещание о невмешательстве в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без ведом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19 ноября 2018

От имени сахалин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이모저모

(2면의 계속)

10 월의 스포츠맨에 가라테 선수 장 스타니슬라브가 선정

매월 사할린주 스포츠·관광 및 청년정책부와 사흐콤 통신사가 공동으로 이달의 우수 선수 선정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에 이 사이트의 독자들은 장 스타니슬라브 공수도(가라테) 선수에게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10월의 선수는 <오롤컵>전국 공수도 경기의 연령 16-17세, 체급 61 키로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할린 주민들은 장 선수에게 301표를 주었다.

공수도 선수 라슬 케리모브는 몇 표 차로 장 선수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라슬 선수는 러시아의 영웅 알렉산드르 프로호렌코 기념 <유럽-아시아> 전국 공수도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할린의 라슬 선수는 연령 18세 이상, 체급 84 키로의 최상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홈스크 출신의 키릴 석 선수는 우수 3위권에 들었다. 지난달 키릴 선수는 전국 공수도 최상급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전국 공수도 경기인 알렉산드르 프로호렌코 기념 <유럽-아시아>와 <오롤 컵>경기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이달의 선수 투표에서 키릴 선수는 54표를 얻었다.

12월 초에는 11월 결산 우수 선수를 새로이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Спортсменом октября сахалинцы признали каратиста Станислава Тяна

Ежемесяч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агентством Sakh.com проводит конкурс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лучшего спортсмена месяца.

В этот раз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голосов читатели сайта отдали за каратиста Станислава Тяна. В октябре спортсмен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Кубок Орла" в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спортсменов 16-17 лет и весе 61 кг. За него проголосовал 301 сахалинец.

Всего лишь на несколько голосов ему уступил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арате — Расул Керимов. Он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золотой медал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Европа-Азия", посвященные герою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у Прохоренко. Сахалинец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в самой престиж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 18 лет и старше" в весовой подгруппе +84 кг.

Замкнул тройку лидеров также каратист Кирилл Сек из Холмска. В минувшем месяце юноша дважды становился призером престижных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карате. Спортсмен завоевал бронзовые награды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карате "Кубок Орла"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Европа-Азия" памяти героя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а Прохоренко. За него проголосовали 54 сахалинца.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будет объявлено новое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лучшего спортсмена месяца по итогам ноябр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알립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기념식은 2018년 12월 7일(금) 17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азднует 25-летие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 праздничное торжество, которое состоится 7 декабря в 17-00 в актовом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р. Мира 83А).

Оргкомитет

EDA.SAKH.COM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т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Реклама</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